

320억 들인 순천만 갯벌치유관광플랫폼 내년 착공

순천시 교량동 복원습지 인근에
생태성 살린 자연 조화 치유 거점
미래형 관광도시 도약 기폭제 기대

순천시가 순천만의 생태적 원시성을 살리고, 자연과 조화되는 치유 거점으로 갯벌치유관광플랫폼 조성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조성 테마사업으로 국비 160억원을 포함 총 3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순천시 교량동 복원습지 인근에 조성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갯벌치유관광플랫폼은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닌



순천만 갯벌치유관광플랫폼 조성 예정지.

'치유와 생태의 중심'이라는 미래 도시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구축된다. 특히 순천시는 람사르협약의 핵심 원칙을 설계 전 과정에 반영해 순천만이 가진 원시 생태성을 훼손하지 않고 건축물과 자연

의 조화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건물 또한 자연을 방해하지 않는 건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습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고, 최소한의 구조로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다.

핵심 프로그램은 자연 기반 치유 콘텐츠다. 갯벌 명상, 음식 치유, 마을스테이, 탐조 및 사운드 워킹 등 방문객의 상태와 목적에 따라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플랫폼을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결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는 물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도모한다. 농산물, 숙박, 음식, 문화콘텐츠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통합 관광 모델을 통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울러 치유 전문가 양성, 로컬 비즈니스 확대, 관련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갯벌치유관광플랫폼은 순천만의 자연을 존중하고, 회복의 에너지를 품은 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유 산업의 메카이자, 미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드론으로 병해충 방제 해드립니다

광양시 900ha 20일까지 신청

광양시가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및 비료 살포에 대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수도작 드론 방제 및 비료 살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드론 방제를 통해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사업량은 총 900㏊이며 사업비는 총 85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6월 중 신청을 받아 집중 방제 시기인 7~9월에 드론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드론 방제를 허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관내 항공방제업으로 등록된

지역농협 또는 방제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제업체 명단은 각 읍·면·동사무소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드론 방제를 통해 최근 잣아진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도열병, 흰잎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노린재류 등 주요 벼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벼 수량 및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미자 광양시 스마트원예과장은 "기후변화로 각종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확장 시 기인 6월 말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품질 쌀 생산은 물론,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귀농·귀촌인 유치 우수마을 시상

30개 마을에 인센티브 9000만원

고흥군이 지난 5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열린 6월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2024년 귀농·귀촌인 유치 으뜸마을 만들기' 30개 마을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특히 ▲고흥읍 봉동, 봉계, 당촌 ▲동강면 원유둔 등 4개 마을은 2년 연속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인센티브는 주민회의 등을 통해 마을이 자율적으로 귀농·귀촌인 회합 프로그램 운영이나 환경 개선 사업을 계획·추진할 수 있도록 해, 마을의 활

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성취감도 함께 높였다.

군 관계자는 "2030 고흥인구 10만 명 달성을 위

해서는 군민과 공직자 모두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

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025년 5월 말 기준 전출 대비

전입인구가 284명 순 유입되며 인구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주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 '2025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 도시 부문 7년 연속 수상 등 귀농·

귀촌 1번지로서 대내외 위상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10년후 곡성 경관 조성 주민 의견 듣습니다

11일 주민공청회 개최

곡성군이 오는 11일 곡성을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곡성군 경관계획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관계획은 지역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법적으로 재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곡성군은 지난해 2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경관현황 조사, 지역자원 분석, 주민 경관 의식 조사 등을 거쳐 2035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곳곳마다 매력이 넘치는 곡성, 방방곡곡'이라는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경관 여건, 군이 지향하는 경관 이미

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의 계획 수립 과정을 군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역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주민의 경험과 시각이 더해질 때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이 완성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현장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6월 18일까지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며, 수렴하여 최종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 직접 참여해 소중한 의견 나눠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예상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6월호

2025년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스 : 062-222-0195

날씨
완도

특집
광주, 녹색도시를 그리다

- 중앙근린공원은 국가도시공원이 될 수 있을까?
- 국내외 '도심 속 예술공원'을 기다려
- 기고- 도심공원은 심폐기이다

섬에서 시작되는 여름, 완도를 즐기다

화제의 천시
체험형 설치·로봇·테크 전시
ACC '애호가 편지' 전

조인호의 키워드로 읽는
광주 전남 미술사①

현세에 펼친
이상향의 세계
남도의 석불·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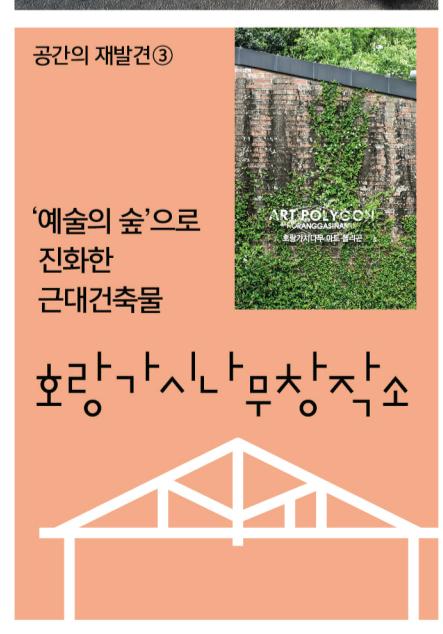
유럽 소도시 기행②
'매혹적인 중세도시'
독일 하이델베르크



호남의 누정시즌① 담양 독수정
여말 선비 전신민의
지조 오롯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
여수·순천·광양 장애인 생활체육 교류전



‘예술의 숲’으로
진화한
근대건축물

호랑이사나무 창고